

한국 내 중국 뉴스 번역 양상*

-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김선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1) 번역(translation)과 편역(trans-editing)
 - 2) 뉴스 편역에서 사회적 내러티브와 뉴스 프레이밍
3. 중국 관련 기사 편역 양상
 - 1) 코로나19
 - 2) 시드(한한령)
 - 3) 한중 역사, 문화 갈등
4. 결론

국문초록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은 현재 한중관계는 반중, 반한 정서라는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수교 이후 경제교류에서 비약적 발전을 해온 양국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긴 정치, 역사, 문화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국에 대한 뉴스 보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뉴스의 번역 혹은 편역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대

* 이 논문은 2021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두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의 언론사별 편역 양상을 분석하고 이 보도가 반중 정서 형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내의 보수와 진보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중국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신문사의 편역 양상을 분석한다.

키워드: 뉴스 번역, 번역뉴스, 편역, 반중감정, 코로나, 사드, 한한령, 동북공정

1. 서론

2022년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사회영역에서 한자와 유교문화권이란 공통점으로 상대국에 대해 ‘우리와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양국 간 교류 증가에 따라 외교적 마찰도 증가하여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늘 분쟁(1999),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문제(2004),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폭(2010)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사드 배치는 그 갈등이 더 심화시키는 사안이었다. 연이은 미세먼지(2013), 사드 배치(20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19),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및 한복 논란(2022) 등으로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의 양국 우호 교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반중, 혐중 정서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정치·경제 분야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문화 분야의 마찰과 협력에 관해 정밀한 연구와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사실 이러한 반중 정서는 결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1년 봄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와 싱가포르 두 개국을 뺀 나머지 모든 국가의 대중 비호감도는 50%를 넘는다.¹⁾ 이는 G2로 비약적 성취를 거둔 중국이 국제적 위상과 기

1) 김지운, 「글로벌 반중 정서의 양상과 원인」, 『성균차이나브리프』 10,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2022, 103쪽.

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실망감과 또 패권국으로서의 중국 굴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반중 정서의 형성에 뉴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반 다이크(Teun A. van Dijk)는 이데올로기와 뉴스 담화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나 언론사가 가진 이데올로기에 따라 뉴스 제작자들의 견해가 형성되고 그들의 견해는 뉴스 기사의 담화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역설했다. 국제뉴스의 번역을 뉴스 생산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번역된 뉴스 역시 해당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²⁾ 이와 관련하여 언어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고, 등가성 또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환상에 대해 리디아 리우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행하는 번역의 행위는 언어들이 등가적 동의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환상과 언어에 대한 권력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³⁾

한편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간 뉴스 번역에서는 강수정(2011)의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 뉴스 편역 보도에 관한 연구, 황은하(2014)의 한중 뉴스 표제의 기계번역, 강수정(2016)의 한중 번역뉴스의 프레임(Frame) 전환에 관한 연구, 원효설(2018)의 한국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의 중국어 번역 양상의 연구, 이재원(2020)의 한국어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의 중국어 번역 유형 연구, 류스원(2021)의 중한 기사 제목에서의 은유 번역 양상 연구, 장루이(2022)의 중국 관영매체 정치 뉴스의 한국어 번역문에 관한 분석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번역 양상과 전략을 언어적, 텍스트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 관련 뉴스를 한국 언론이 편역한 보도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본고는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의 언론사별 편역 양상을 분석하고⁴⁾ 이

2) 김기영,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한미FTA 관련 뉴스 사례분석」, 『번역학연구』 14, 한국번역학회, 2013, 45쪽.

3) 송연석,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외신인용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한국번역학회, 2011, 146~150쪽.

4) 번역과 편역에 관련한 논의는 2장 참조.

보도가 반중 정서 형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내의 보수와 진보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중국 관련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신문사의 편역 양상을 분석한다.⁵⁾

2. 이론적 배경

1) 번역(translation)과 편역(trans-editing)

일반 독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의 뉴스 번역은 외신 인용 보도의 형태를 취하는 편역(trans-editing)이다. 편역은 편집(editing)과 번역(translation)을 합친 말로, 1989년 스테팅이 처음 도입한 용어다. 유럽의 언론기관들에서는 특정 언어로 쓰인 기사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행위를 ‘번역’이 아닌 ‘transediting’, 즉 ‘편역’으로 지칭한다.

국제뉴스는 번역된 부분이 인용으로 처리되어 뚜렷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번역과 해설, 논평이 뒤섞일 때가 많다. 바스넷과 비엘사(Bielsa & Bassnet)는 뉴스 번역의 경우 새로운 사회와 상황, 이데올로기, 기사 작성 관행에 따라 원문을 “다시 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언론사의 국제 뉴스 보도 기사는 한 통신사나 외신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5) 많은 연구들이 신문사 이념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신문사를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언론사의 이념적 정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이념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진보적인 이념을 표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김경희·노기영,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380~385쪽.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 성결대학교 다문화연구회, 2020, 22~30쪽.

기사를 부분적으로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 뉴스라고 하더라도 서구 언론인 AP통신사,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포스트(SCMP), 중국 본토의 인민망 등의 내용을 한 기사에 다루고 있기도 하여 기자가 직접 쓴 기사같이 보이기도 한다.

바스넷(2006)은 뉴스 번역을 단순히 A 텍스트에서 B 텍스트로의 언어 간 전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텍스트A를 대대적으로 개작하고 종합하는 작업으로 보기 때문에 여타 문서 번역에 적용되던 기존의 기준으로 이들을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가 번역되어 새로운 문화와 상황 속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삭제되고, 독자의 부족한 배경지식이나 해석, 해설이 첨가되는 등의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번역은 뉴스 번역의 속성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비엘사와 바스넷이 정리한 '뉴스 번역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다섯 가지 조정(modification)'은 뉴스 번역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편집 전략을 보여준다⁶⁾

(1) 뉴스 번역의 편집 전략

- 표제와 리드 바꾸기: 표제와 정보성 부제에 해당하는 리드는 목표 독자나 해당 매체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
- 불필요한 정보 삭제: 목표 독자에게 이미 잘 알려졌거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삭제
- 중요한 배경지식 첨가: 목표 독자가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맥락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배경지식을 첨가
- 문단 순서 변화: 새로운 맥락에서 정보의 연관성과 해당 매체에서 사용하는 문체에 따라 문단의 순서 변화
- 요약: 허용된 지면에 넣거나 목표 독자와 관련 없는 긴 기사를 줄임

본고는 상술한 번역 전략에 근거하여 중국 관련 뉴스를 번역한 조선일보와

6) 김기영, 「국제뉴스 현지화와 그 양가적(ambivalent) 측면」, 『번역학연구』 15, 한국번역학회, 2014, 11~13쪽.

한겨레신문의 뉴스 기사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편역 기사는 특정 중국 혹은 해외 언론사의 뉴스 전체를 全譯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편역 뉴스의 표제와 리드, 어휘 선택 사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뉴스 편역에서 사회적 이야기 전개와 뉴스 프레이밍

내러티브(narrative)는 ‘서사’ 혹은 ‘이야기’로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라면, 사회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공유된 스토리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미시적 이데올로기’로 이해할 수 있다. 베이커는 소머스(1992, 1994, 1997), 소머스와 김슨(1994)의 내러티브 이론을 번역학에 도입해 첨예한 군사적, 정치적 대결 상황 속에서 내러티브의 차이가 번역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구했다⁷⁾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도 불리었는데 2021년부터 전 세계 미디어 보도에서 이 명칭은 사라졌으며 현재는 ‘코로나19’가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과 맞서는 G2 패권국으로 ‘굴기’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WHO의 권고에 따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선택한 것이다.⁸⁾ 이렇게 번역 역시 사회의 일부, 사회의 구성원으로 중립적이기 어려우며 베이커는 방송보도나 신문 기사에서 이미지, 캡션, 제목의 조작을 통해 내러티브가 ‘프레이밍’ 된다고 보았다.⁹⁾

한편 프레임(frame)은 사전적으로 카메라 앵글이나 사진의 바깥 부분을 감싸는 ‘틀’을 말한다. 카메라 앵글이나 틀에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

7) 김기영(2012), 앞의 글, 42쪽.

8) 박미정, 「공공 서사와 뉴스 번역: 한일갈등서사의 라벨링 프레이밍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 한국번역학회, 2021, 146쪽.

9) 김기영(2014) 앞의 글 재인용, 13~15쪽.

있다는 의미로 뉴스의 프레임은 ‘선택’과 ‘강조’의 관점에서 ‘프레이밍’을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에서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부각시키는 도구’라고 설명한다. 프레임은 우리 주변의 현실을 취사선택하여 재조합하고 재해석하여 우리가 주변 현실을 받아들이고 판단할 때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⁰⁾

이렇게 언론 보도 프레임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한 사회의 특정 여론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뉴스를 편역한 뉴스 보도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은 언론 기사를 통해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어떻게 프레임 되는지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용·이동훈(2005)은 프레임 형식의 보편적 유형화를 시도하고 프레임의 속성과 미디어 담론 관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배경, 관련 주체 간의 행위 관계 등을 중심으로 ‘행위·추상’, ‘발화·결과’의 두 축을 기준으로 ‘정황’, ‘귀인’, ‘배경’, ‘가치’ 네 가지 차원의 프레임 유형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¹¹⁾

(2) 김원용·이동훈(2005)의 프레임 유형

- 행위/결과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 : **정황** - 행위로 인해 유발된 결과가 행위 관계 등에 초점을 둔 경우, 대부분의 갈등 보도에서 나타나는 대치, 부정적 상황
- 행위/발화 차원에서 형성된 프레임 : **귀인** - 사건을 규정하는 관련 주체의 행위와 원인을 연결한 것으로 책임 소재를 추궁하거나 원인을 추론
- 발화/추상 : **배경** -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10) 이희영·김정기,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 국내 117개 프레임 연구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60,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9~11쪽.

최수진,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 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 한국언론정보학회, 2014, 511쪽. 물론 그 영향의 강도는 수용자의 지식수준이나 다른 프레임과의 경쟁 등 개인적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1) 김원용·이동훈, 「언론 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2005, 183~185쪽.

- 강조하는 것으로 구체적 행위보다는 추상적 차원의 설명에 치중
 - 추상/결과 : **가치** 사건의 결과에서 유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도덕성을 강조한다.

상술한 기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 관련 뉴스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뉴스 어휘의 사용과 내러티브 구성이 어떠한 프레임 유형의 텍스트로 변화시키는지 살펴 볼 것이다. 메이슨(Mason, 1997: 147)은 “번역자는 텍스트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출발텍스트(ST)의 텍스트 세계(text world)를 자신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투과시켜 각기 다른 결과물(TT)을 만들어낸다”고 한 바 있다. 같은 ST, 즉 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기사라도 기자 개인과 조직 내외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가진 결과물로 번역될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¹²⁾ 이 과정에서 중국 뉴스 번역에서 프레임이 뉴스의 주제적 구성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원문 뉴스가 제공한 뉴스 소재의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켜 프레임을 전환하는지 그 양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¹³⁾

3. 중국 관련 기사 번역 양상

반중 정서와 관련해 <시사IN>은 사건별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¹⁴⁾

12) 송연석, 앞의 글, 148~149쪽.

13) 각 언론사의 외신 뉴스 번역과 감수 및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홍정민, 「한국의 뉴스 번역 참여자 간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게이트키퍼 수정 모델」, 『번역학연구』 13(4), 2012, 269-301쪽 참조.

14) <시사IN>은 「중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핵심 집단, 누굴까?」라는 제목의 비교적 전면적인 ‘한국인의 반중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본고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본고의 기사 검색 키워드를 추출한다. 2021년 06월17일.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1>.



〈표 1〉 역사적 사건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본고는 위 역사적 사건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위 3개 사건을 순서대로 즉, 코로나19 발생과 사드 보복(한한령), 한중 역사, 문화갈등(동북공정) 키워드로 삼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관련 기사에 대해 반중 내러티브에 따른 프레임 형성과정과 표제, 부표제, 기사 본문의 어휘 선택의 양상을 살펴본다. 한편 검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기별 중국(인) 혐오 정보 키워드를 추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시기	주요 키워드
2020년	1-6월 우한폐렴, 박쥐,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한국인 감금/격리/빨간 딱지 코로나 책임회피, 차별금지법, 조선족
	7-12월 코로나 제조설, 중국역사왜곡 한복, 김치, 중국산 백신, 미세먼지,
2021년	1-6월 김치 기원(파오차이), 황사, 역사왜곡 코로나 기원, 조선족 특혜, 동북공정
	7-12월 한복,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인 특혜,
2022년	1-6월 베이징 올림픽, 한복, 상해 봉쇄
	7-현재 중국 봉쇄, 사드 3불1한, 동북공정(한중일 청동기 유물전), 한중수교 30주년

〈표 2〉 시기별 중국(인) 혐오 정보 키워드¹⁵⁾

15) <미디어 오늘> 의 “강남에서 나온 확진자와 대림동 확진자는 천지 차이” 기사 검색 범위는 21년 9월까지로 본고의 집필 시점까지 ‘반중정서’ + ‘베이징 동계올림픽’, ‘김

코로나19 발생과 사드 보복(한한령 등)은 ‘코로나’와 ‘사드’ 및 ‘한한령’으로, 한중 역사, 문화 갈등은 ‘동북공정’, ‘김치’, ‘한복’ 등을 검색어로 갈등 사안이 발생할 시점을 중심으로 1개월 동안의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1) 코로나19

A. 코로나19 편역기사 표제 편역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로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는 2,754건, 한겨레는 22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편역 기사만 추려내기 위해 ‘-에 따르면, -에 의하면’의 외신 보도 인용 문구로 재검색하여 조선일보 95건과 한겨레 12건을 분석했다.¹⁶⁾ 다음은 코로나 초기 한국인의 중국 입국 금지와 관련된 편역 보도이다.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자	2020년 2월 27일	2020년 2월 7일
표제	중국 곳곳서 한국인 막는데... 청와대는 "중정부가 한 게 아니다"	중, 곳곳에서 "한국인 진입 거부" 난징 아파트단지, "한국인 격리, 자가아닌 제3장소에서"
프레임	정황, 귀인	정황, 배경
내러티브 구조	- 한국내 우한 코로나 급속 확산 - 삼류 국가 취급을 받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훼손) - 정부의 태도 '중국 감싸기', 중국 정부와 중국 대사관의 해명과 같은 어조 - 일본 입국금지, 중국 여전히입국	- 한국내 코로나 확산에 중국이 경계심 - 지방 정부 당국의 불법적 진입금지 조치에 현지 외교 당국 항의 - '폐쇄식 자가격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 "중국에서 들어"

치’, ‘한복’, ‘동북공정’ 키워드로 각각 추가 검색했다. 2022년 1월 1일.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35> .

16) 지면의 한계로 인용 문구는 생략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내용만 본문화했다.

	금지하지 않음	온 한국 - 현지 한인회 교민들의 반발, 교민 격리 통제 조치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
--	---------	--

<표 3> 한국인의 중국 입국 금지 관련 보도

조선일보는 중국 내의 강제 격리 현상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러티브로 전개하고 있다. 엄중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중국에 항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중국 정부나 대사관에서 내놓은 해명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주장하던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입국 금지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입국을 허용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중정부가 한 게 아니다"라는 부표제는 조선일보의 비판 대상이 중국보다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 정부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예고 없는 한국인 강제 격리 상황을 보도하면서 현지 한국 외교 부문이 항의했다는 기사를 덧붙였다. 또 한국의 장관이 한국 코로나 확산의 원인에 관한 주장이 한중관계, 중국 내 교민의 처우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가 당시 국내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해당 기사에 첨부된 다음의 사진이었다. 한국인이려면 ‘韓國’, ‘日本’ 정도의 한자는 읽을 수 있기에 공고문 사진 밑 해설은 반중 정서를 격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진1> “한국인 출입금지”... 中아파트 입구에 걸렸다-중국 산둥성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 직원이 긴급통지문을 게시하고 있다. ‘한국·일본에서 온 사람은 단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급속 확산하자 중국 각지의 시(市)나 마을 주민위원회에서 예고 없이 한국인을 겨냥한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바로 뒤 ‘한국·일본에서 온 사람은 단지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번역문을 두



었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은 처음에 나오는 ‘한국인 출입금지’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일본에서 온 사람’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또는 외국인 그 누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사진의 첫 설명은 반중, 혐중 내러티브에 기반해 팬데믹을 일으킨 중국이 오히려 ‘한국인만 차별’의 프레임을 씌웠다. 한편

한겨레신문의 중국 내 한국인 격리와 관련된 기사에는 사진2의 같은 한인 타운에 걸린 중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현수막 사진을 보도하여 보도의 객관성을 가급적 담보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사진2> 지난 27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국인 집단 거주지역인 왕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적힌 펼침막이 내걸렸다. 교민 제공.

코로나19의 경우 반중(反中)을 넘어 혐중(嫌中)에 가까운 외국인 혐오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의 진영 논리에 따라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당시 언론사별 사설의 주요 논조는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힘써야 한다’였다. 다음으로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금지 조치(23건)가 자주 언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언론사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모든 사설이 ‘중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겨레는 ‘중국 입국 금지는 적절치 않다’, ‘한국인 입국 제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일간 입국 규제는 적절치 않다’가 대부분이었다.¹⁷⁾

검색 결과 조선일보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감염을 우려하는 한국

17) 김수경, 앞의 글, 29~30쪽.

대학생들의 숙내를 토로하는 “中친구들 속속 귀국하는데 휴학해야 하나… 대학가 덮친 우한폐렴 공포”(2020년1월29일)의 기사를, 한겨레신문은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2020.3.10), “16일 격리보다 힘든 건,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종이 한 장”(2020.3.10) 등의 혐중, 반중 정서 조장 및 강화에 관한 우려의 기사를 싣고 있었다. 강태영(2022)은 코로나 국내 확산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를 소재로 한 뉴스에서는 오히려 혐오 발언이 감소했는데 이는 팬데믹을 더이상 중국만의 이야기로 ‘타자화’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⁸⁾ 하지만 해산물에 PCR검사를 하는 중국의 뉴스를 편역한 두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코로나 초기의 보도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자	2022년 8월 19일	2022년 8월 19일
표제	‘제로 코로나’ 집착하는 중국...물고기·새우도 ‘코로나 검사’	하이난성 확진자 급증에...중국, 생선·계 대상 코로나 검사
프레임	정황	배경
내러티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보건당국 해산물에 코로나 19 검사 실시 - 방역 인원이 물고기, 계와 새우를 검사하는 동영상 - 바이러스의 원인 항만노동자 혹은 냉장식품 취급 노동자일 가능성 높음 - (실효성 없는) 감염의심을 계속하는 중국 지방 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난성 코로나19 급증, 일부 도시 해산물에 PCR검사 - 검사 동영상 - 누리꾼들의 비판 (역사에 길이 남을 일, 검사 양성 시 처리문제, 비용부담 등)

〈표 4〉 중국 해산물 코로나 검사 관련 기사

18) 언론은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질병의 원인을 ‘우리’의 것이 아닌 ‘그들’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즉 타자화(otherize)하여 대중의 공포를 완화하려 시도한다. 강태영, 코로나 이후, 반중 정서는 과연 심화되었을까, 2021년 12월 18일. 출처: <https://minvv23.notion.site/BigKinds-19-8bc320e8352f4a37b4e7d78cb5f51d94>, 김수경, 앞의 글, 31쪽 재인용.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 표제는 “‘제로 코로나’ 집착하는 중국”이다. 이는 팬데믹이 종식되어가는 현재, 각국이 문호를 개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며 폐쇄적인 중국의 코로나 정책을 비웃고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의 표제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며 해산물에도 PCR검사를 하는 중국의 정책이 중국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명묵(2002)은 개혁개방이 한창이던 1990년대 한국인들은 고도성장기 중국의 여러 혼란상을 ‘대륙의 기상’이라는 ‘밈(meme)’으로 소비하며 문화적 우월의식을 형성했지만 이후 중국의 굴기로 이 우월의식은 약화되고 대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¹⁹⁾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 이후 중국의 책임 회피 및 정보 은폐 등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체제 선전만 강조하는 중국의 대처 방식에 반감을 품는 대중정서에 기반해 조선일보는 흔들리던 우월의식을 다시 전면에서 세워 ‘집착하는 (미련한) 중국’의 이미지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B. 어휘 선택

2019년 팬데믹 초기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은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기원했다는 반중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했으며 완곡한 표현 ‘코로나19’로 이를 대체할 것을 전 세계 각국에 촉구했다. 전염병에 의한 지역, 민족 등에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2020년 1월~2021년 1월을 기준 전 세계 공용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그 내러티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즉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는 단어로 반중 프레임의 기사에서는 여전히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우한 폐렴’ 등의 명칭을 고집하며 한국 정부가

19) 임명묵, 「한중 청년은 어디에서 서로를 인식하는가」, 『성균차이나브리프』 10,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2022, 123~124쪽.

왜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 당시 야당인 보수 정치권도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난했다.²⁰⁾

한편 22년 3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인구 2,600만명이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 봉쇄가 시행되자 국내 언론들도 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봉쇄령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다음 표제에서 쓰인 어휘는 각 언론사가 중국에 대해 어떠한 내러티브에 기반해 프레이밍을 했는지 잘 나타내준다.

- (3) 조선일보 : 봉쇄 여파로 음식 보관 ‘비상’...中 상하이 냉장고 판매 153% 폭등(2022년 4월 14일)
- 한겨레신문 : 코로나 봉쇄가 냉장고 키웠다...상하이 냉장고 구매 50% 급증(2022년 4월14일)

조선일보는 ‘비상’, ‘폭등’이라는 어휘를 선택하여 상하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태라는 내러티브를 전달한다. 또 두 언론사는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표제의 통계치가 153%, 50%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은 기사 본문이다.

- (4) 조선일보 : 글로벌조사기관인 GFK 중국 지사의 통계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상하이의 냉장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4% 급증했다. 4월 둘째 주에는 전년보다 153.2% 폭증했다.
- 한겨레신문 :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지에프케이(GFK) 중국 지사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상하이의 냉장고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했다. 이번 달 둘째 주에도 지난해보다 153.2% 늘었고,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등의

20) 조선일보가 ‘일본 뇌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병명은 쓰면서 ‘우한 폐렴’은 왜 안돼냐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WHO의 명명법 개정 전 지어진 병명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우한 폐렴’ 명칭을 고집하는 조선·한경·종편, 2020년 2월 13일. 출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0>.

경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냉장고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6% 늘었다.

조선일보는 표제에서 큰 숫자, 기사 본문에는 ‘급증’, ‘폭증’이라는 자극적인 어휘를 배치해 봉쇄에 따른 중국의 사회적 변동이 극심하다는 부정적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증가’, ‘늘었다’는 중립적인 어휘를 선택해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5) 조선일보 : 상하이, ‘전면 봉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상하이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포동지역을, 이달 1일부터 4일까지는 포서지역을 완전 봉쇄하고 2500만 명에 달하는 전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했었다. 시는 이날 봉쇄 연장 조치에 대해 전수 검사는 완료됐으나,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년4월 06일)²¹⁾

한겨레신문 : ‘공급’ 식료품 꾸러미엔 무엇이?...중국 상하이 봉쇄 연장
코로나19 감염세가 줄지 않으며 중국이 상하이 도시 봉쇄를 연장한 가운데, 도시 안 박람회장을 코로나19 관련 임시병원시설로 바뀌고 당국이 각 가정에 식료품 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봉쇄에 대처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2022년4월6일)

(5)의 예와 같이 조선일보의 경우 표제에서 ‘무기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예측 불가의 상하이 봉쇄 장기화의 혼란을 내러티브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표제부터 봉쇄에 따른 식료품 꾸러미엔 무엇이 있는지 등 봉쇄에 장기화 대한 여러 대책을 소개하면서 상하이의 봉쇄 상황에서 현지 중국민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다.

21) 조선일보 포털에서 검색하였으나 출처는 조선Biz의 기사임.

2) 사드(한한령)

2016년 5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사드’, ‘한한령’으로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는 130건, 한겨레는 58건이 검색되었다. 이들 중 번역 기사만 추려내기 위해 ‘-에 따르면, -에 의하면’의 외신 보도 인용 문구로 재검색하여 조선일보 8건과 한겨레신문 5건을 조사했다.

A. 사드(한한령) 번역기사 표제 번역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의 땅으로 기대하며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를 포기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채택하면서 배타적,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문제가 발발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 기회’라는 가치로 중국을 평가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한한령은 잠재된 우려가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혐오와 반감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적 문제, 특히 미중관계, 대북문제에 있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중국은 경제 분야와 달리 위협적 존재였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사드로 인해 한중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중국은 한국의 1/8에 불과했으며 한국의 손실액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추가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현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손실액과 기간은 예측이 불가하다.²²⁾ 다음은 한국의 신임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문제가 재촉발한 2022년 한중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된 뉴스 번역 보도이다.

22) 아시아경제, 中 사드 추가보복 땀 22조원 손실, 2017년 3월 22일.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32210561540085>.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자	22년 8월 10일	22년 8월 10일
표제	中 왕이 부장의 '5개 요구'... 한국 협박 도를 넘었다	중국의 이례적 '5가지 요구', 한중관계에 도움 안된다
프레임	정황, 귀인	정황, 가치
내러티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中외교장관면담한국 겁박 일색... '5개 응당' - 3불(不) 1한(限), 중국 한국에 '외교 무례' 자행 - "尹 정부, 중국에 말과 행동으로 당당함 보여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외교장관 회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반도체 '칩4'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 - 3불(不) 1한(限) - 한중 수교30년 양국관계 새로운 도전, 한국의 외교능력이 시험대에 오름

〈표 5〉 2022년 한중 외교 장관 회의 관련 기사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표제부터 '협박', 본문에서도 '겁박', '외교 무례' 등의 한국인의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중국에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중국의 사드 관련 추가 요구나 한국 측이 '3불1한을 선시(宣示)했다'는 주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두 편역 보도 모두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고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두 기사의 표제나 내러티브, 프레임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요구' 즉 '5개 응당<마땅히 해야 할 것> 한국식 한자 표기는 5個 應當>을 견지하라(堅持五個 '应当')'의 제목부터, 각 항목의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을 병기하고 있다. 또 항목마다 중국의 '내정 간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동맹에 한국이 가입하지 말라는 요구', '대만 문제에 가만있으라는 강요', '갓 출범한 한국 새 정부에 가이드 라인 제시하고 겁박' 등의 분석을 제시하여 주권 국가인 한국에 패권을 행사하는 위협적인 중국이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역시 한국이 ‘5개 응답’이 미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사드, 반도체,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 입장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중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면서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와 신임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은 사드로 인한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을 의미하는 ‘한한령’ 관련 기사로 미국의 뉴욕 이스트먼음대가 한국인 단원의 비자 발급 거부 때문에 중국 공연을 취소했다는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표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일자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자	2019년 10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표제	중국이 韓人 단원 3명 입국 막자 美이스트먼 음대, 공연 연기 결정	뉴욕 이스트먼음대 중국 공연 취소 보도 관련 “한국인 단원 비롯해 아직 중국 비자 신청 안해”
프레임	정황, 귀인	정황, 귀인
내러티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대 학장 “中, 사드 이유로 한국인 단원 비자 거부” - 당초 한인 뺀 77명만 공연예정에 미국서 “中 공산당에 항복” 비난 쏟아지자 뒤늦게 번복 -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 알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생 발급 어렵다’ 中반응에 美 음대, 제출 포기했을 가능성 - 우리 정부 해당 단원 전원이 중국 비자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 중 - <ap통신> 등이 전날 보도했고, 이를 인용해 국내 일부 언론도 같은 내용의 보도 - 한국 외교 당국이 진상 파악을 한 결과, 한국인 단원을 포함해 공연 관계자 누구도 아직 중국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 - 경향외교부 발언동일

〈표 6〉 미국 뉴욕 이스트먼음대 중국공연 취소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한한령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재미 한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했지만 같은 일자의 한겨레신문은 한국 외교 당국의 진상 파악 결과 비자 발급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기사 본문의 분석에서 조선일보는 미국 내의 반중감정으로 결국 공연을 취소했다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은 학교 당국이 한한령 상태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자체적인 사전 판단으로 인해 공연을 포기했다는 구조이다. 다음날 11월 1일 조선일보는 전일 기사의 후속 보도를 하면서 한겨레신문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듯하지만 표제를 여전히 “누구 말이 맞나... 정부는 '공연단 전원, 비자신청 안 했다.’”라고 작성하여 정부의 입장과 여전히 다른 대립,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책임 혹은 귀인 프레임 만들었다.

B. 어휘선택

한한령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게임 시장을 잃은 한국은 2020년 12월, 약 4년 만에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의 중국 내 서비스 허가(版號)를 얻게 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제로 보도하고 있다.²³⁾

(6) 조선일보 : 中, 4년만에 한국 게임 허가... “삼페인 터뜨릴 뎀 아니다”
2017년 3월 이후 처음 허가, 한국업체 “시장 다시 열리나” 기대(2020년12월4일)

한겨레신문 : 한한령 풀리나...중국, 3년9개월 만에 한국 게임 허가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 승인, 사드 이후 보복
조처 완화 청신호 해석(2020년12월3일)

23)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현재 중국 게임시장은 279억 달러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한겨레신문, 한한령 풀리나...중국, 3년9개월 만에 한국 게임 허가, 2020년12월3일.

출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72730.html>.

두 기사 내용에는 모두 한한령 완화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담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한한령으로 인한 국내 게임업체의 피해액 규모를 밝히면서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으며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불신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한-중 간 문화 협력과 교류 회복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2021년 9월 초 중국 정부의 ‘양파오’(娘炮) 규제는 한국 남자 아이돌 퇴출이며 또 하나의 한한령이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사의 지면을 덮었다. 조선일보 역시 ‘中, 국가 차원의 ‘예쁜 남돌’ 퇴출령...“미적 기준 재확립 필요”라는 표제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CNN방송의 보도를 번역해 새로운 ‘문혁’의 조짐이라는 후속 칼럼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은 한국 일부 언론이 기형적인 심미관의 여장남자와 같은 ‘양파오(娘炮)’를 과잉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 남자 아이돌 퇴출까지 연결해서 반중감정을 더 자극한 해프닝이며 사실 규제의 핵심은 예쁜, 화장한 남자 아이돌의 문제가 아니라 TV 예능에도 사회주의적 국가관을 주입하려는데 있다고 보았다.²⁴⁾

3) 한중 역사, 문화갈등

한중 역사, 문화갈등에서는 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고 ‘동북공정’으로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는 1,011건, 한겨레는 536건이 검색되었다. 이들 중 결과내 검색어로 번역 기사만 추려내기 위해 ‘-에 따르면, -에 의하면’의 외신 보도 인용 문구와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복’ 검색어를 더하여 조선 167건, 한겨

24) 미디어 오늘, [팩트체크] 중국의 ‘화장한 예쁜 남자 아이돌’ 퇴출 보도 진짜 맞나, 2021년9월1일.

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81, 조선일보, 송재윤의 슬픈 중국:중국공산당이 ‘꽃미남’을 싫어하는 까닭은?, 2021년10월9일.출처: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10/09/DJWGYMST65DKJGEM33E4HJ3LII/, 한겨레신문, 국내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중국, 2021년 9월30일.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3255.html.

레 39건을 추출했다.

A. 한중 역사, 문화 갈등 편역기사 표제 편역

한중 양국은 역사, 문화 영역에서 김치와 한복의 원조 논란을 통해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충돌과 갈등이 연속되었는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극에 달했고, 중국에서는 반한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국도 중국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특히,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중국의 현재 상황을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한국의 젊은 세대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반감도 더욱 커졌다.²⁵⁾

다음은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 입은 조선족’ 논란과 관련된 보도이다.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자	22년 2월 7일	22년 월 일
표제	고대사·김치·한복... 中 대놓고 '문화 공정'	전쟁터 만든 한복... '혐오정치' 원조 경쟁이 떠올랐다 개막식 한복 '원조' 논란을 넘어서
프레임	정황, 귀인	배경, 가치
내러티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올림픽 개최식 '한복 입은 조선족' 논란 - 조선족이 한복 입은 건 당연, 여러 전문가들 '문화 침탈'의 연장이라는 의견에는 부정적 - 그러나 김치 원조논쟁에 이은 한국인들의 불만과 민감한 반응 - 고대사에서 한복·김치까지, 계속되는 '도발' - 차이나머니의 한국 드라마 유입 '조선구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베이징올림픽 개막식(4일)에 등장한 한복, 중국의 '문화 공정' 시도 우려 - 중국의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 - 한국인들의 불만은 일견 당연 - 그러나 문화는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것 - 시진핑의 리더십의 한계 - 굳이 배타적 소유권을 따져가며 소모적 논쟁 지양

25) 표나리,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6쪽.

	-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중국, 소수민족 포용이 아닌 '문화제국주의'	- 반중정서에 편승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정치권의 모습, 혐오 원조 경쟁 - 한국 문화의 힘은 자유, 포용, 다양성. 그저 문화가 자연스레 흘러가게 놔두자
--	---	---

<표 7>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한복 논란 관련 기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한복 입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을 대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김치 원조' 논쟁까지 부가하여 '계속되는 도발', 드라마 '조선구마사' 차이나머니의 유입, '문화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 일색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부표제에도 "개막식 한복 '원조' 논란을 넘어서"에 나타나듯이 소모적인 원조 논쟁으로 거침없는 언사로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7) 세계를 매혹한 한국 문화의 힘은 자유, 포용, 다양성에서 나온다. 굳이 배타적 소유권을 따져가며 소모적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저 문화가 자연스레 흘러가게 놔두자. 기자가 묵는 호텔에 있는 베이징 공안마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김치를 나눠줄 수 있냐"고 묻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겐 있다.

이와 관련하여 Xu Yulan·오창학(2015)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타난 중국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역사, 문화범주에서 조선일보는 역사와 문화 그 자체가 아닌 이미 '정치화된 역사와 문화'를 전면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⁶⁾ 이는 최근 제2의 동북공정 논란이 된 중국국가박물관의 한중일 청동기 유물전에서 고구려, 발해를 삭제한 연표 논란 관련 다음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6) Xu Yulan·오창학, 「한국 언론에 그려진 중국 이미지 연구 -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6, 2015, 300~302쪽.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자	22년 9월 19일	22년 9월 20일
표제	“동북공정은 학술 문제”라는 중국의 거짓말 정치 논리로 고구려사 왜곡 뒤 ‘학문 영역’이라 강변하는 중국	고구려·발해 지운 ‘동북공정 2막’과 신장위구르
프레임	정황, 귀인	정황, 배경
내러티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청동기 유물전 한국 역사 연표에서 중국 측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 - 중국의 동북 공정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시작부터 철저하게 정치적인 공작 - 2004년 한·중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 - 2007년 백제와 신라까지 중국사의 일부라 주장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 시진핑의 말처럼, 중국은 한국사 전체를 ‘속방(屬邦)’의 역사로 집어삼키려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국가박물관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지운 한국 고대사 연표 전시 - ‘동북공정’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중국 공식 역사관에 깊이 뿌리를 내렸음을 확인한 계기 - 2004년 한중 5개 사항 미준수 - 2007년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었지만, 박물관과 유적지 안내문, 역사 교과서 등 ‘동북공정 역사관’ 계속 확산 -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변화와 ‘역사 새로 쓰기’의 큰 틀을 보아야 - 소수민족 역사 = ‘중화민족의 역사’ 중화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구축 구상

〈표 8〉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대사 연표 관련 기사

두 언론사 각각 “동북공정은 학술 문제”라는 중국의 거짓말, 고구려·발해 지운 ‘동북공정 2막’과 신장위구르로 2002년부터 발발한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학술적 영역’이 아닌 ‘정치적 공작’으로 간주하며 심지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제기하며 한국사를 집어삼키려는 의도라며 반중감정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반중 정서를 연상

하는 단어는 가급적 자제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바라보는 큰 틀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변화와 ‘역사 새로 쓰기’를 제시했다. 또 신장 위구르의 강제 ‘재교육’ 수용소 문제를 언급하며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몽’과 ‘56개 민족이 단결해 중화 대가정을 형성하자’는 강력한 정부 정책 기조가 ‘동북공정’에 전제되어 있다면서 논란의 배경과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B. 어휘 선택

한중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반중, 반한 정서는 앞선 한복, 김치의 ‘원조 논쟁’으로 더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은 김치의 원조 논란과 관련된 두 언론사의 기사 표제이다.

- (8) 조선일보 : “김치는 중국 음식” 中 유튜브, 구독자수 기네스 신기록 썼다-1410만명 중국어 채널 최다 구독자 기록(2021년2월3일)
- 한겨레신문 : 김치와 파오차이처럼-짜장면과 자장면의 ‘영혼’은 다르다, ‘영혼이 다른’ 음식 두고 원조 논쟁을 하는 건 ‘상상의 적’ 만들 뿐(2021년4월11일)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우리의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영상에 담은 중국 유명 유튜브의 조회 수가 기네스북을 경신했다는 문구로 예전 일본의 ‘기무치’ 논란처럼 위협적인 중국에 김치마저 뺏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한국의 소울 푸드인 짜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상상의 적’을 만들어가며 상대국을 공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대국의 반감을 자극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를 관행적으로 ‘파오차이(泡菜)’ 번역해온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파오차이’는 채소를 염장한 음식의 중국 음식의 통칭이다. 우리의 고유한 ‘김치’를 검증 없이 중국 음식의 일부인 ‘파오차이’라고 번역해왔으니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김치도 중국 파오차이의 일종이며 중국에

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2005년 초 서울시가 ‘한청(漢城)’이었던 서울의 중국어 명칭이 ‘서우얼(首爾)’로 공식 발표된 후 중국인들과 일부 한국인들의 반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 중국어권에 공식 용어로 보급 정착된 사례가 있다. ‘김치’ 역시 적합한 중국어 번역어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된 중국어 ‘신치(辛奇)’로 표기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었고 당시 논란에 언급되기는 했으나 공식 용어로 정착이 될지는 알 수 없다.²⁷⁾

4.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국내 언론사의 중국 관련 뉴스 기사를 현안별 중요도 상위 세 주제를 키워드 검색해 이들의 편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뉴스 기사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표제 및 부표제, 리드의 내러티브 구성과 프레이밍을 살펴보았는데 조선일보는 중국의 뉴스에 대해 ‘왜?’라는 정황 프레임과 배경 프레임, ‘누구의 책임인가’하는 귀인 프레임의 비중이 높고 가치 프레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적절한 가치를 제시하는’ 가치 프레임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반중 정서에 입각해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한겨레신문은 미·중 대치상태의 현 세계 정치 역학 구도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

다음으로 뉴스 번역 프레임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인 어휘 선택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비교했는데 보수 진영을 대

27) 한겨레신문, 김치와 ‘신치’, 한겨레신문 2021년 09월 08일.

출처: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0993.html>

변하는 조선일보는 반중 감정을 자극하는 어휘의 사용 빈도가 한겨레신문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사드(한한령), 동북공정 등 개별사안 분석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입장은 차이가 보였는데 특히 사드(한한령) 관련해서는 정치적 입장이 상반되는 기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동북공정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두 언론 모두 비슷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근원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보수, 진보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본고의 분석과정에서 한국 언론사들은 중국의 뉴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사의 특파원 혹은 통신사의 보도 내용을 근간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번역의 대상은 중국 언론의 보도보다 서구 혹은 홍콩 언론사 등 여러 언론사 보도를 참고하여 정확한 원문을 검색하여 이를 대조 비교분석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닌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과 확연히 다른 한국의 언론 환경과 보도 경향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은 ‘반중’이라는 색안경을 낀 외국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옮겨 굳이 한국민의 반감을 더욱 자극하고 한중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수정,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참고소식>의 한국뉴스 편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5,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27, 2011.
- _____, 「한중 번역뉴스의 프레임(Frame) 전환에 관한 연구」, 『중국문화연구』 35, 중국문화연구학회, 265-301, 2017.
- 강지혜,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 한국번역학회, 7-32, 2012.
- 김경희·노기영,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 한국언론정보학회, 361-387, 2011.
- 김기영,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 현지화 현상—한미FTA 관련 뉴스 사례분석」, 『번역학연구』 14, 한국번역학회, 39-63, 2012.
- _____, 「국제뉴스 현지화와 그 양가적(ambivalent) 측면」, 『번역학연구』 15, 한국번역학회, 7-24, 2014.
-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 성결대학교 다문화연구회, 22-43, 2020.
- 김원용·이동훈,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한국언론정보학회, 166-197, 2005.
- 김지운, 「글로벌 반중 정서의 양상과 원인」, 『성균차이나브리프』 10,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102-107, 2022.
- 류스원, 「중한기사제목에서의 은유 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22, 한국번역학회, 79-111, 2021.
- 박미정, 「공공 서사와 뉴스 번역: 한일갈등서사의 라벨링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 한국번역학회, 139-169, 2021.
- 송연석,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외신인용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한국번역학회 145-165, 2011.

- 원효설, 「한국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동아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72), 이중언어학회, 123-142, 2018.
- 이재원·조신, 「한국어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의 중국어 번역 유형 연구」, 『중국 연구』 8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45-64, 2020.
- 이희영·김정기,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 국내 117개 프레임 연구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60, 한국언론정보학회, 7-38, 2016.
- 임명목, 「한중 청년은 어디에서 서로를 인식하는가」, 『성균차이나브리프』 10,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122-127, 2022.
- 장루이, 「중국 관영매체 정치뉴스의 한국어 번역문에 대한 비평 및 제안 - House의 번역품질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언어연구』 98, 중국언어학회, 529-560, 2022.
- 최수진,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 한국언론정보학회, 505-532, 2014.
- 표나리, 「반중 정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27, 2022.
- 홍정민, 「한국의 뉴스 번역 참여자 간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게이트키퍼 수정 모델」, 『번역학연구』 13(4), 269-301, 2012.
- 황은하,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한 한중 뉴스 표제의 기계번역」, 『번역학연구』 15, 한국번역학회, 333-362, 2014.
- Xu Yulan·오창학, 「한국 언론에 그려진 중국 이미지 연구 -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46, 한중인문학회, 277-303, 2015.

Abstract

A Brief study on Translations of Chinese News Reports in Korea

Kim, Seon Ah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China relations are being tested as anti-Chinese and anti-Korean sentiment.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made rapid progress in economic exchanges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are intensifying in the political, historical, and cultural fields that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The impact of news reports on the public in understanding the other country is absolut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lation patterns of Chinese news by media companies in the Korean media and examines how this report correlates with the formation of anti-Chinese sentiment. To this end, the Chosun Ilbo and Hankyoreh newspaper articles represent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ideologies in Korea compared the translation patterns of the two newspapers on the same issue.

In a specific way, the top three negative perceptions, such as the COVID-19 outbreak, THAAD retaliation, Korea-China history, and cultural conflict (Northeast proces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frame formation, heading, and vocabulary selection according to anti-China narratives.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Chosun Ilbo, all articles related to China are reported based on anti-Chinese narratives, and in the case of the Hankyoreh newspaper, it was striving to objectively analyze, solve, and present alternatives for each case. Given the media's influence on bilateral relations, future translation reports should reduce antipathy as much as possible and strive to write objective and friendly reports.

Key words : News translation, translation news, translation, transediting, anti-Chinese sentiment, Corona, THAAD, Kimch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